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に伴う放射線の影響は心配ありません

せん (韓国語)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 총리가 3 월 15 일에 발표한 국민을 향한 메시지에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20~30 km 범위를 실내 대피지역으로 권고함에 따라 이바라기현에 인접하는 「이와키시」의 일부도 그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본 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가반형방사능검출기를 3월 13일 이후부터 기타이바라기시 등에 설치하고 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3 월 16 일 정오 현재, 최대 15 마이크로시벨트(0. 015 밀리시벨트) /시간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통상시에 비하면 약 300 배 정도이지만 흉부 X 레이 촬영시(0. 05 밀리시벨트)의 3 분의 1 정도의 레벨이며 건강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 0. 015 밀리시벨트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본인이 1 년간에 자연계로부터 받는 방사선 양(1. 48 밀리시벨트)의 100 분의 1 정도로서 매우 작은 레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관측되는 방사선의 수치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원래 이바라기현내에서 관측되어진 수치는 최대일 경우라도 0. 015 밀리시벨트/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그 2 배가 된다고 해도 걱정할 만한 레벨이 아닙니다.

물론 비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일 비를 맞는다고 해도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3월 15일에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3 호기와 4 호기 사이에서 400 밀리시벨트/시간의 방사선이 관측이 되어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레벨이라고 보도가 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을 느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사선의 힘은 거리의 2 승에 반비례 하므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80 km 떨어진 기타이바라기시에서는 그 힘이 극히 작은 레벨이 되므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이바라기현내의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행동이 필요할 만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냉정히 행동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